

# “여성이 과학에 관심가져야 나라가 발전하지요”

우리나라 女性농학박사 1호

## 金三純 박사

대담 / 朴澤奎 (건국대 이과대학장/본지편집위원장)

### 부친개화에 영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전남담양에서 올라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혀 피곤한 기색이 없으시니 여전히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어린 시절과 학교 시절 이야기를 들려 주십시오.

전남 담양군 창평면 창평리에서 7남매 중 3녀로 태어났는데 엄친이 수천석집안의 부농이셨고 한학자셨어요. 아버님께서 개화에 앞장서서 여자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셨지요. 10세에 4년제 국민학교인 창평보통학교에 입학했어요. 아버님께서 여자부를 개설하도록해서 언니와 함께 입학했지만 조모님께서 완강히 반대하셔서 언니는 1학기만 다니고 도중하차, 그나마 나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조모님께서 허락하셨어요. 4학년 졸업후 당시 일본유학생이었던 오라버니가 할머니를 설득해서 16세에 서울와서 경기여자고등보통학교(현 경기여고)에 입학하였지요. 그런데 나는 4년제 출신이어서 6년제 국민학교졸업생과는 달리 지리, 역사 등의 자격시험을 치르고서야 입학할 수 있었어요.



◇ 여성선각자로서 한평생을 과학교육에 헌신해온 김삼순박사(좌측)가 박태규 본지 편집위원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 전기불보고 과학지원

경기여고보에 입학자격시험 그리고 입학시험을 거쳐서 입학하신 시골처녀로서 당시를 회고하시면 그리운 추억도 많으시겠습니다.

창평시골집에서 광주를 거쳐 서울로 오는데 요새는 다섯시간 정도면 족하지만 당시야 창평에서 광주까지는 인력거, 그리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11시간 걸리는 기차여행이었어요. 저녁에 서울에오니 전기불이 찬란한데 전등이라는 것을 처음 보았고 다음날 전차를 보고는 더

놀랐어요. 그때 이미 앞으로의 세상은 과학문명시대일 것이고 그래서 자연과학을 공부해야겠다고 마음속에 다짐했지요. 경기여고시절에는 구한말 정부파권 일본유학생이었던 孫貞圭선생님(가사담당)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경기여고보 18회 졸업생인데 동아일보 일장기말소사건때의 명기자 이길용선생의 부인 정희선여사도 동기생입니다.

경기여고보를 졸업하신 다음 동경여자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하시게 되는데 당시 여성에게는 인기가 별로 없었던 이과계를 택하신 용기가 대단하셨습니다.

경기여고보를 20세에 졸업하고 곧바로 동경여자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하였지요. 4년제로서 2년까지는 동·식물 등 자연 전반을 배우고 3·4학년때 물리·화학·수학·생물(박물, 지리도 포함) 등 세분된 전공을 택하는데 나는 물리, 화학을 선택하였고 1933년에 졸업했어요.

두분의 여자선생님 야스이 고노(保井コノ, 일본여자로서 이학박사 1호, 세포 학전공), 구로다 지카(黒田チカ, 이학박사 2호, 화학) 등 쟁쟁한 분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일본동경여고사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았고 이 학교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야망을 키우게 되었어요. 기억에 남는 일 한가지는 입학후 얼마 안돼서 일본최초의 여자농학박사학위를 받은 가또세찌고(加藤セチコ, 생존) 박사가 선배로서 모교를 방문하여 전교생앞에서 논문발표를 하는 것이었어요. 크게 감명을 받았는데 조선에는 여자의 학박사 헌분과 고향경박사가 있을 뿐이어서 내가 꼭 여자박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지요. 그러나 이때 병약해서 1년간 휴학했어요.

## 日서 유학후 교사생활

동경여고사를 졸업하신 후 귀국하셔서 여자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게되는데 그게 어느 학교입니까?

여고사를 졸업하면 일본이나 조선에서 2년간 교사의무연한이 있는데 반드시 학교에 근무해야 했어요. 동경여고사 졸업후 귀국해서 10개월간 진명여고에서 근무하다가 모교인 경기여고에서 불려서 이 학교에서 교사생활을 계속했지요. 경기여고에서는 화학·수학 등 이과과목을 가르쳤는데 여선생으로는 과학담당교사가 희귀한 때였어요. 2년간의 의무연한만 마치면 계속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경기여고에서 계속 붙들어서 4년간



교사생활을 했어요. 선생시절 집안에서는 계속 결혼문제를 들고나왔는데 나는 공부만 고집하고 꼭 일본인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식민지백성의 억울함을 벗고 여자박사가 되겠다는 결의를 굽히지 않았지요. 그런데 당시 여동생 金季純의 큰 시숙인 李泰圭박사가 귀국하셨는데 이박사에게 간청드려서 어머니를 설득하시도록 했지요. 이박사께서 박사가 된 다음에는 꼭 혼인시킬테니 유학보내라고 어머니에게 간청, 허락을 받게 되었지요.

## 흑가이도대서 박사

일본에 가셔서 흑가이도제대에 입학, 본격적인 학문연구를 시작하시게 됩니다만 경기여고교사 사임후 몇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고 또 정규고등학교 출신이 아닌 여성으로서 대학입학에 어려움도 많으셨을텐데요.

몸이 아파서 4년을 보낸 다음 일본으로 가게되었어요. 그런데 고등사범 졸업후 입학자격이 있는 대학은 동경문리과

대학과 히로시마문리과대학 등이 있고 사립대학도 있었으나 제국대학입학은 매우 어려웠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로서는 제국대학입학은 난감했어요. 흑가이도제대에 내가 희망하는 학과가 있었고 다행히 결원이 생겨서 입학시험을 거쳐 합격했어요. 흑가이도제대에는 조선인여자로는 유일하다고 해서 당시 신문에 입학·졸업때 기사가 나기도 했어요. 孫致武박사(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미 졸업한 뒤였고 李敏載박사(전 강원대총장)는 1년 선배, 동물학전공의 姜永善박사가 동기예요. 1943년에 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농학부에 입학하였지요. 그런데 2차대전말기 관부연락선 침몰사건때 나도 그배를 타기로 예약했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동경을 다녀오느라고 그 배편을 놓쳐서 살아남게 되었지만 제자인 송인봉이 이배에 타서 유명을 달리한 일이 무엇보다 가슴이팠어요.

해방된 다음 국내대학 강단에서 후진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처음 부임한 대학이

서울대여자사범대였습니까?

당시 여자사범대 孫貞圭학장(경기여고 보 은사)이 시골집으로 전학하셔서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어요. 이 학교가 뒤에 서울대 사대로 통합됐지요. 경기여고보, 서울대 여사대제자로는 玄己順, 李惠秀 등이 있지요. 건국대, 서울대에서 강의하다가 1968년 고허경학장의 초빙으로 서울여자대학에 전임이 되고 이 학교에서 정년을 맞았지요. 고허장의 건학이념이 매우 훌륭했고 여자교육을 함께 하자는 고허장과의 약속을 지켜서 다른 대학에 가지 않았으며 나도 학교를 설립하여 고허장처럼 원대한 교육이념을 펼쳐보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 3형제가 국회의원

선생님께서 학문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셨고 또 그 의지를 다지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데 부모님의 각별하신 사랑, 그리고 부모님의 적극적인 학비지원 등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의정(議政) 30년사를 평하는 신문기사에 선생님택을 한국의 케네디집안이라고 합니다. 집안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아버님은 교육에 대한 이해가 많으신 분이셨고 지방의 부농이어서 학비조달에는 어려움이 없었지요. 오라버니 金洪鏞은 2대 민의원원이셨고 이름난 효자였는데 6·25때 돌아가셨어요. 큰동생 金汶鏞(78세, 2대민의원), 셋째동생 金星鏞도 말레이시아 대사를 지내고 국회의원을 세번 했지요. 3형제가 국회의원을 지낸 집안이라 해서 케네디집안이라는 표현을 쓴 신문을 본 일이 있어요.

이제 대망의 농학박사를 취득하기 위한 연구차 다시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학위는 몇년후에 받으셨습니까?

61년에 다시 일본에 연구하러 갔어요. 모교인 후카이도대에서 3년동안 연구했

는데 지도받을 교수가 없어서 규슈대에서 3년간 연구후 이 대학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받았지요 6년간 연구끝에 받은 학위입니다만 이 6년동안 정말 사연이 많습니다. 학위 받을 때 일본통신, 신문 등에서 대서특필했지요. 기사내용도 한국인 여성농학박사라는 이야기 등 기사거리로 될 만한 것이 많았는데 특히 비자를 8번씩이나 연기하면서 일본체류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가장 관심거리였어요. 당시 일본관청에서 자꾸 시비를 걸면 내가 일본에 살려고 온 것인 줄 아는가, 연구가 끝나면 내조국 대한민국으로 갈테니 아무 염려 말라고 큰 소리 치면서 6개월마다 한번씩 체류연장 허가를 받았지요. 드디어 「다가 Amylase A의 광불활성(光不活性)에 관한 연구」로 1966년 7월에 농학박사학위를 받았지요.

### 한국균학회 설립육성

선생님은 균학을 국내에 도입하셨고 한국균학회를 설립하신 어머니로서 모든 분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연구논문을 쓰는 일은 일본에서 낫포균(菌)을 처음 분리한 일본 후카이도제대 균학교실의 태두 한자와(半澤)교수의 조언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화학을 하려고 했는데 만학인 나로서는 어려운 분야였지요. 응용균학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었어요. 여자로서 먼 곳에 가지 않아도 연구재료가 얼마든지 있는 분야. 즉 발효식품으로서 부엌에 가도 그 소재가 많이 있는 균학이 좋다는 것이었어요. 과충에서 균학회인준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현재 회원 1천5백여명의 한국균학회로 발전한 것을 보면 매우 흐뭇합니다.

요새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성지(聲至)학술상을 제정하

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군 금성면에 있는 농장에서 혼자 살고 있지요. 담양출신 국회의원이었던 작은 동생내외가 자주 와서 함께 지내지요. 1988년에 성지학술상을 제정해서 금메달과 3백만원의 부상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재를 쾌척(快欸), 기금을 적립중인데 재단법인 해사재단(海史, 아버지 金在職의 호)을 설립중에 있어요. 지금까지 장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였는데 금년안에 법인체로 해사재단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 88년 성지학술상 제정

선생님께서 당대를 살아온 여성선각자로서 교육에 대한 헌신·연구에 대한 집념을 불살라오신 분으로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평소의 과학에 대한 생각,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하는 여성이 많아야겠어요. 한가정의 선생으로서 뿐만 아니라 여성이 과학에 관심을 가져야 나라가 발전하지요. 그리고 자연훼손,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 환경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해요. 대결경쟁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공생공영(共生共榮)사상에 입각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해 지하의 미생물이 죽어버리는 것이 안타까워요. 자연의 순리, 자연에 순응하는 말하자면 자연섭리에 맞는 농업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성인교육, 과학교육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서울근교 1시간거리이내에 교육원을 만들어 현재의 짠 된장대신에 덜 짜면서도 구수한 된장 만드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비법을 주부들에게 강의하고 싶어요.

선생님 오랫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 건강하셔서 계획한 일들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